

연중 제31주일

기도서 469 편(A해)

제1독서 : 말라1, 14b-2, 2b. 8-10

제2독서 : 1페살 2, 7b-9. 13

복음 : 마 태 23, 1-12

# 숲 정 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인 홍보국  
인쇄관 리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 강론



## 함께 하는 삶

박 성 팔 신부

대지(大地)를 품다 못해 빨갛게 땅이 든 낙엽을 보노라며 웅지 눈물이 글썽인다. 왜 이럴까? 단순히 반복되는 계절병 때문일까? 아니면 세월의 폭력 앞에 여지없이 꺼져가는 생명에 대한 아쉬움 때문일까? 제법 그럴듯하게 감상적인 생각을 해보지만 아무래도 하느님을 신앙(信仰)하는 나(우리)에게 걸맞은 생각이다. 지금 나(우리)에겐 구력같은 옷, 갈라진 손, 까만 고무신을 신고 있는 농민, 소리없는 몸짓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근로자…… 이외에 여러가지 고통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생명들에 나(우리)의 생각이 머물고 이에 성실히 살아가야 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나(우리)는 어느정도 소유(所有)를 향유(享有)하면서 바리새이처럼 주일이 나 지키는 정도라면 나(우리)는 확실히 위선자다. 애도 누가 우연히 세상에 태어나 보니 좋은 부모 만나 배고파 보지 않고, 도둑질 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고 불안해 보지 않았다 해서 하느님 앞에 의인(義人)이라 자처할 수 있겠는가? 또 반대로 배고파 보고, 도둑질 하고, 불안하다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둘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옆을 보아야 한다. 이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 생활의 영역(領域)을 철저히 깨고 하느님의 뜻을 살아가야 한다. 율법학자나 바리새이처럼 거드름을 피우고, 무거운 짐을 남의 어깨에 메워 손가락 하나 까닥 하지 않으며,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살아서는 안된다. 또한 어디서든 맨 뒷자리에 앉으려 하고, 인사받기를 좋아하며 교만해서도 안된다.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결손되어 오직 한 분 스승이신 주님을 모시고 말이다. 우리는 주님안에 한 형제이고, 함께 사는 데 의미가 있으며, 하느님도 우리를 공동체적으로 구원(救援)하시기 때문이다. 기실(其實) 우리는 거짓되고 위선에 찬 행동, 이기심, 무관심…… 온갖 추악한 내 영혼의 모습 때문에 세례때 하느님께 다짐했던 약속들이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음을 울어야 한다. 가는 세월 아쉬워 우는 뜻도 여기에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내(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운다는 것은 무서운 위선(僞善)일 뿐이다.

“너희의 스승은 오직 한 분 뿐이고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다(마태 23, 8).”

(장수 주임신부)



## 살아 있는 기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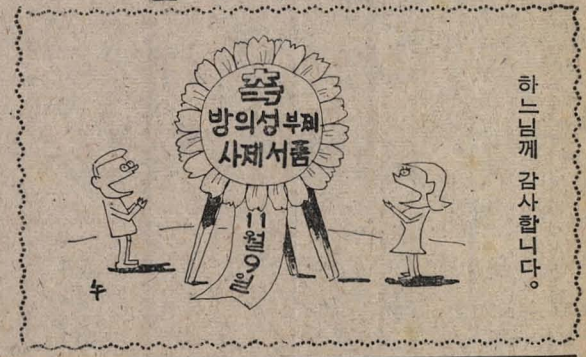
우리의 조상들은 벼농사를 바탕으로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켜 왔다. 알곡은 식량으로 삼았을 뿐더러 갖가지 음식문화도 만들어 냈다. 벼짚으로는 집을 짓고 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었으며 펠감으로도 썼다. 또 겨와 벼짚은 가축의 사료로 썼다. 그리고 농사일을 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두레·울력·품앗이 등 협동체제는 훈훈하고 아름다운 상부 상조의 전통을 남겼다. 이래저래 농사, 농촌은 우리의 생명줄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농촌은 점차로 황폐해지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은 농사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그들의 할아버지들이 대대로 살아온 농촌을 미련없이 떠나고 있다. 수지타산이나 발전 가능성이 어둡다는 것이다. 어쩌다 이렇게 되고 말았는가? 그러나 누가 무어라고 해도 아직은 농촌은 우리 생명의 젖줄이다. 그래서 우리는 농촌을 살려야 한다. 우리 모두가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교구는 다음 주에 농민 신앙대회를 갖는다. 농민 신앙대회는 “예수께서 소망하고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라는 나눔과 섬김의 판”이 될 것이라 한다. 나눔과 섬김의 판은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 농민운동 등을 통해서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 보고자 노력했다. 그 길은 험난하기만해도 우리가 쉬지 않고 걸어야 할 여정이다.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해온 우리의 고향은 농촌이고, 농민들은 우리의 가까운 형제들이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농촌문제는 농민들에게 물려 버리고 만다. 무언가 잘못 되어가고 있다. 공동체 의식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이 현실을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된다. 힘들더라도 함께 모이자.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된 사랑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도록, 살아 있는 기도를 함께 드리자.”

## 숲 정 이 산책



# “진리찾던 의지로 영생얻은 한국성인”

□ 전례 해설

## 위 령 성 월

하늘에 제신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겨레와 모든 나라를 이 큰잔치에 초대하십니다.

천주님의 신비로운 잔치 초대에 한국민족은 실로 놀라운 용의와 모험적인 노력으로써 응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가짐의 보상으로 오늘 한국교회 공동체는 훌륭한 꽃을 피우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의 경우, 사상에 그 유례가 없는 일로 한국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신앙을 나라안으로 들여왔습니다.

몇몇 선비와 사상가로 구성된 이들 신자의 모임은 진지한 진리 추구의 일념으로 그들에게 빛이 될만한 이들을 찾아 북경과의 위험천만인 접촉을 감행했습니다. 한국에 있어서의 교회 개척자로 불리우는 이들 남녀교우들은 무려 56년에 걸쳐 거의 사제들의 도움없이 혼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목숨까지 바쳤던 것입니다. 특히 그 역사의 첫세기에 있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이처럼 뛰어나게 증거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우주한 순교자들의 대열이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증거에 대한 생각이 한갓 추상적인 회상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였습니까?

오늘도 세상 여러 곳에서 우리의 형제자매 중 수많은 이들이 물이해와 소외와 핍박과 신체적·정신적 폭행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기구들에 의한 종교자유 원칙의 범인류적 선포도 아랑곳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들이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 순교자 103위의 이 장엄하고 뜻깊은 오늘의 축전은 현대의 어떠한 난관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라고 신자인 우리들을 일깨워줍니다. 주님의 명령께서 어제의 증거를 도와주셨듯이 오늘의 증거도 똑같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말씀의 온전함을 일그러뜨리는 타협의 길을 택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1베드로 5,9)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처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리스도의 제자일 수 있으며 그래야만 그의 증거가 난관을 극복하고 양심에 정말로 울려올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환호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비추시어 어떠한 희망으로 불타있는가를 깨닫게 하시기를 바랍니다」(에페 1,17~18 참조)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빛입니다. 구원과 하늘 나라에 대한 희망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걸음을 이끌어 그 대망을 가르키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게 하는 진리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의 걸잡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10월 14일 한국 순교성인 경축미사 교황강론 요약)

초세기부터 가톨릭 교회는 죽은 이들을 자주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는 등 많은 기도를 바쳐왔다. 로마시대에 있었던 삼백 년간의 박해 당시에 신자들의 유일한 피난처였던 지하 공동묘지(까다뎀 바)의 비석에도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문이 많이 새겨져 있는데, 그 내용은 죽은 이들이 속히 죄의 사함을 받아, 천국의 영원한 행복에 들게 해달라는 것들이다. 이때부터 이미 교회 전례에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문이 삽입되기 시작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구속 공로로 구원의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일생 동안 하나님을 향해 살다가 은총중에 죽은 경우라 하더라도 조그마한 부족과 결점이 남아 있다. 우리 중에 현재 있는 그대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완전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조그만 결점이 있어도 안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기에 자연히 이런 결점과 부족을 기워 갚아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기워 갚고 정확하는 시기를 ‘연옥’이라고 한다.

연옥에서 구원을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눈앞에 보면서도 그것에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다. 정화중에 있는 영혼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없다. 오직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만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행을 하며 희생을 드릴 수 있다.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빨리 석방되기 위해서는 밖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듯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현세를 사는 우리들의 특권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다.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신심은 가톨릭의 가장 유호한 신심 중의 하나이다. 이 신심은 세상을 떠난 신자들의 불우한 처지를 도와주는 사랑의 실천이며, 현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당연한 의무인 동시에 우리 자신을 위한 신심이기도 하다. 정화중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와 선행은 하나님을 찬미할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일이므로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도움을 받은 그들도 우리를 잊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런 신심은 우리 자신의 죽음을 묵상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는 죽음을 떠나서는 우리의 삶을 생각할 수 없다. 산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니 이 위령의 달에 우리 자신의 죽움에 대하여 묵상하면서 우리 삶을 바르게 살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 위상양내과의원

◎ 종합검사 내시경 및 초음파 검사시설완비

전주시 고사동 1가 184  
(구 역전오거리)

☎ ②9152. 1752

위 상 양 (프란치스코)  
김 병 희 (글 라 라)

### 쑤명동피부과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기과, 병리검사

원장 전문의 최 창 기 (루가)

임상병리 검사실  
임상병리사 임 윤 자

☎ ③1219, ⑦0616 (원장실)  
(구역전오거리, 팔달로동편 2층)

이 땅에 빛을



한국천주교회  
200주년기념

### 농민 신앙대회를 위한 7일 기도

기간 : 1984. 11. 4~10일

방법 :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같은 지향으로 기도

농민들은 하느님이 주신 땅을 가꾸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생산하는 큰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노력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노동자들도 물론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구조적인 악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픔입니다. 우리 교구 농민들은 11월 11일(일), 순교자의 피로 얼룩진 숲정이(해성학교) 마당에 모여 수확을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서로 나누어 「사랑으로 하나되자」고 다짐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자신이 농민이 아니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형제요 우리 생명의 젖줄입니다.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소망이 하늘에 이르도록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이디오피아 등지에서 굶주림에 죽어가는 형제들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시다. 열렬한 기도와 동참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천주교 전주교구 농민사목위원회

### □ 방 의 성 부제 사제서품



일 시 : 1984. 11. 9(금) 오전 11시

장 소 : 전주 중앙 천주교회

집 전 : 박 정 일 주교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여러분의 성원으로 저희 교구에서는 한 분의 새 사제가 주님의 제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부디 자리를 같이 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4. 11.

천 주 교 전 주 교 구 사 제 단  
천주교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 □ 빈첸시오회 피정

평신도들의 형제적 단체인 성 빈첸시오 아 빠울로 회원들은 끈경에 처해 있는 자기 이웃 안에서 하느님께 봉사함으로써 크리스찬 사랑의 존재를 증거합니다. 사랑의 나눔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개종시키기 위해서나 개심시키기 위해서 배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이웃을 봉사하는 길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 본 회원 피정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때 : 1984년 11월 17일 오후 7시~18일 오후 5시까지

곳 : 완주군 상판면 신리, 상판천주교회 내

지도신부-김 영신 신부, 유 장훈 신부 회비-2천원

준비물-미사책, 성가책, 묵주, 필기도구, 세면도구, 모포 1장

연락처-전주 교구청 사목국, 전화 ⑤ 0041~3

### □ 진안 어은지역 성 이명서 기념성전 축성식

진안본당(주임 강덕창 신부) 내 어은지역 신자들을 위한 200주년 기념, 성인 이명서 베드로 기념성전 축성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진안본당 신자 일동

일 시 : 1984년 11월 10일 오후 2시

장 소 : 진안군 진안읍 오천리 평촌

주 레 : 박 정일 주교님

### 요심이(587) 김병오

레이전 대통령이 장기집권자 마르코스를 지지한다고?



미국은 국민을 탄압한 파레바를 지지했다가 망신당했고...



국민이 싫어하는 티우를 지지했다가 쫓겨나왔고...



그리고...



□마춤 · 대어□

### 신 부 의 집

\*웨딩드레스 · 연주복 · 비디오촬영 · 페백의상 · 신부부케 · 야외촬영

판문도로 서울신탁은행 앞

☎ ⑥ 6951

정 인 기 (눈치노)

천추질환 · 내장질환 단식상담 환영

회원모집

### 요 가 단 식

요가수련 : 오전 6시30분 10시, 오후 3시

시술 : 수시 상담 환영

단식 : 수시 상담 환영

☎ 김 제 4 0 5 0

- 호수(퇴갑) 웃감
- 특수 파티복
- 고급 침구류
- 각종 손 일체
- 커튼지

도매 상

### 서울주단

☎ ③0453 ⑤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학원생 수시 모집(주·야)  
철저한 개인지도

V. T. R로 산 교육화

### 현대 미용학원

전주시서노송동(중앙성당앞)  
원장 : 김 테레사(금순)  
☎ ④ 9206 · ③ 5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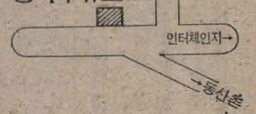
### 흥국상사 흥국주유소

(회발유 · 경유 · 석유) 품질보증 · 정량신속배달

전주시 팔복동 삼거리  
☎ ③ 1193 · ⑦ 5501

장 마리오  
김 테레사

흥국주유소 전주건설공고





☆ **축! 견진:** 덕진본당(4일)

1. '84 제10차 레지오 간부 연수회: 4일 오전 9시~오후 4시, 장소-가톨릭 센타 회의실, 대상-레지오 간부 및 후보자, 참가비-3천원(꾸리아 지원), 준비물-성서·40주간 성서·공동체성가집·교본
2. 사도회장 및 단체장 모임: 4일 오전 10시~오후 4시, 장소-가톨릭 센타  
대상-본당 사도회장 및 교구단위 사도직 단체장
3. 제17차 어린이들의 모후 소년 꾸리아: 4일 오후 2시, 전주지구-전동성당, 이리지구-장인동성당, 대상-자Pr. 간부
4. 교구 사목협의회: 6일 오전 10시, 장소-가톨릭센타.회의실
5. 사제 평의회: 7일 오전 10시, 장소-교구청 회의실
6. 제3지구(군옥지구)중·고생 체육대회: 4일, 장소-문화국민학교
7. 제3지구 비행장 신우회 성지순례: 10일 아침 7시 출발, 집결장소-옥봉(7시, 구 한일은행-7시30분, 팔마-7시35분, 순례지-미리내

제 1 지구 각 본당 소식 ①

(중앙)

전화 ①711~3

수임 신부 문 정 현  
보좌 신부 나 춘 성  
사도 회장 김 인 협

1. 사도회: 금일 공식미사 후
2. 교역에 주소 전화번호 틀리시는 분 사무실에 신청
3. 병자봉성제: 6일
4. 사제서품: 9일 오전 11시, 중앙성당
5. 농민 신앙대회: 11일 오전 11시, 해성학교
6. 꾸리아: 11일 오후 2시
7. 9시 미사: 20분전부터 성가연습(미사에 늦지 않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955,865원 교무금: 674,000원

(노동동)

전화 ①0969  
수·사 ①7032

수임 신부 김 용 태  
보좌 신부 이 성 우  
사도 회장 이 흥 재

1. 정성과 희생으로 새성전 건립하자: 김옥남-9만원, 박매월-6만원, 강길녀·강학녀-각4만원, 서집배·이경화·이덕보-각 2만원, 김순복·이원규·한순이·문순덕-각 5만원, 홍일순·윤선녀·이옥진·이정순-각1만원, 소계-530,000원, 누계-112,366,000원
2. 사도회 상임위원회: 오늘 오전 9시, 꼭 참석하세요
3. 대의원 릴레이: 오늘 공식미사 후
4. 영세자 모임: 다음주 공식미사 후  
7일 영세하신 분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5. 예수성심회 릴레이: 6일 어머니 미사후
6. 본당 울드레아: 오늘 저녁 8시
7. 아파트 성서연구 및 성령기도회: 매주(화) 오전10시
8. 중·고등부 성가연습: 매일 오후 7시30분
9. 아파트 부녀반 예비자교리: 매주(수) 오전 10시변경
10. 공소 순회미사: 10일 저녁 8시, 신원리공소
11. 차주의 전례담당: 제4조, 차질없이 진행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350,430원 아파트-124,480원  
교무금: 236,300원 아파트-184,000원

(덕진)

전화 신부(3)2182 주임 신부 김 물 회  
수녀(72)1222 보좌 신부 김 일 안  
사무(72)6259 사도 회장 양 상 열

1. 축! 본당의 날, 견진성사: ① 3,000가족 대잔치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② 견진성사를 받는 230명 교형들에게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 조당신자 합동면접: 6일 밤 8시, 사제관
3. 각 단계 신년계획, 예산서 제출바랍니다
4. 다음주 모임: L·M꾸리아·청년회·요셉회(금주 행사 관계로 연기)
5. 금주 본당청소: 청년연합회(10일 오후 1시)
6. 축! 결혼: 11월 10일 12시  
신랑-구자영, 신부-안희영(해리나)

□ 지난주 봉헌금: 554,800원 교무금: 498,500원

(복자)

전화 사제관 75-0592 주임 신부 권 영 균  
사·수 2-5238 사도 회장 김 성 원

1. 11월 다음주일: 농민 신앙대회, 11시-4시 해성학교
2. 신영세자 모임: 10일 오후 3시(9월22일 영세하신분)
3. 성우회·꾸리아: 세계주일로 연기(농민대회 관계로)
4. 각본과 및 단체에서는 84년 결산과 85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18일까지 제출 바람(기일 엄수)
5. 교무금 미수 완납 바람(미수액 봉투에 기입하였음)
6. 미사시간 변경: 저녁-7시, 새벽-6시(12월부터)
7. 성당 온풍기 설치현금: 최창기-20만원, 제-60만원
8. 축! 결혼: 11월 12시,  
신랑-이유영, 신부-김순님(세레나)
9. 금주 성당청소: 월-사도의 모후, 토-자비의 모후

10. 차주 성당청소: 월-평화의 모후, 토-구세주의 모친
11. 금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정동민 ②조성호  
차주전례: 해설-유덕열, 독서-①정동희 ②정운주

□ 지난주 봉헌금: 114,665원 교무금: 399,590원

(서학동)

전화 신부 ①8307  
수녀 ①2276

주임 신부 김 동 준  
사도 회장 김 나 균

1. 모임: 자모회-6일 오전 10시30분, 반장님 월례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꾸리아-다음주일 오후 2시, 성심회-13일 오후 2시, 요나회-10일 오후 5시
2. 성전 보수공사 현금: 5천원-안준배·이계남·임귀재, 10만원-김재열, 5만원-유혜미·정만성, 4만원-이경영, 1만원-최부순·한을순·김환운·정형석·김숙일·김이근·정숙자·강봉호, 3천원-장계순·이소남, 2만원-유정자, 3만원-이진숙, 1천원-이금자, 20만원-익명, 누계-6,730,411원
3. 예비자교리: 오늘 공식미사 후에 교리 시작합니다
4. 차주전례: 해설-김배근·고정수  
독서-①김낙완 ②김한기, 기도-평화의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296,060원 교무금: 177,500원

(순정이)

전화 ①7366  
수·유 ①9567

주임 신부 김 중 길  
사도 회장 김 수 겸

1. 11월은 봉헌의 달: 교무금 완납과 주일현금에 정성을
2. 사도회 릴레이: 예비자교리: 오늘 공식미사 후
3. 꾸리아 릴레이: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신학생 후원금: 약속하신 분 속히 납부 바람
5. 구역방문: 6일-서진1구, 7일-서진2구, 8일-서진3구, 9일-서진4구, 13일-서진5구, 14일-진북2동 1구, 15일-진북2동 2구, 16일-진북2동 3구역  
※ 시간: 오후 2시-5시, 오후 7시-10시
6. 축! 결혼: 11월 11일 12시, 순정이성당  
신랑-안진희(비오), 신부-최화경
7. 금주전례: 해설-이귀태, 기도·독서-이동현·이정숙  
차주전례: 해설-이귀태, 기도·독서-선종현·유희자

□ 지난주 봉헌금: 185,900원 교무금: 290,000원

(전동)

전화 신부 ①6208  
사무 ①3222

주임 신부 김 치 삼  
보좌 신부 정 양 협  
수녀 ①8347 사도 회장 김 범 오

- ※ 축! 사제서품: 방의성(베드로) 부제, 11월9일 오전 11시 중앙성당-첫미사 11월 10일 11시 전동성당
1. 사도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유아세례: 오늘 학생미사 후
3. 자모회·장우회: 다음주
4. 주일학교 자모회: 11월 6일 오전 11시
5. 추계 가정방문: 6일·7일-서완산동·중앙동·다가동
6. 200주년 기념사업 성금: 10만원-유숙자·최덕순, 5만원-이현제·김순태·주금동, 4만원-이영순, 2만원-홍계순·최점숙·최유순, 1만원-조종기·송용남·백복수·김준배·신순례, 5천원-진필선
7. 중·고학생회: 전동외의 밤 11일 오후 7시30분

□ 지난주 봉헌금: 787,260원 교무금: 373,000원

(호자동)

전화 신부 75-3841  
수녀 2-4804

주임 신부 박 중 신  
사도회장 이 교 성

1. 성지순례(미리내): 5일 오전 8시 출발
2. 꾸리아 회의: 오전 9시 3. 사목회의: 공식미사 후
4. 주소·전화 이전: 사무실에 신고 바람
5. 중·고생 성가연습: 9시 학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290,750원 교무금: 319,000원